

그리스도인의 죽음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찬미 예수님!

교리교사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힘썼던 여러분의 노고를 하느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

11월 위령 성월을 맞아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해인 수녀님께서서는 11월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나뭇잎에 지는 세월 / 고향은 가까이 있고 / 나의 모습 더없이 / 초라함을 깨달았네
-이해인, '11월' 중에서

이 시에서 일깨워 주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있

다가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 가슴엔 찬바람'이 일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삶을 다 살 때까지 기다려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잊고 있을지라도 죽음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죽음을 봅니다. 행복한 죽음, 불행한 죽음, 억울한 죽음, 비참한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죽음은 무얼까? 과연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인가? 죽음은 마냥 슬프기만 하고 두려운 것인가? 죽음 저 너머에는 그저 캄캄한 어둠만 있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에 짓밟힌 낙엽처럼 갈가리 찢긴 아픔만이 죽음 너머의 모습일까?'

각종 매체에서 종종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거나 빛을 만나게 되고, 아니면 이미 고인이 된 친지들을 만났다거나 누군가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등입니다. 이처럼 과연 죽음은 다른 마을이나 나라에 들렀다 오는 것처럼 다녀올 수 있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도 신학도 죽음 너머에 대해서 분명한 빛을 비추어 주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 세계는 신비의 세계,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無)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허무하고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처럼, 누구는 한 탈렌트를 받고 태어나고, 또 누구는 다섯 탈렌트를 받고 태어납니다. 누구는 귀족으로 태어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머리가 좋은 아이로 태어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소질을 갖고 태어나고, 재주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가난한 집에, 재주도 없이 미모나 지능은커녕 달랑 건강 하나만을 선물로 받고 태어납니다. 누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영웅 대접을 받고, 누구는 누명을 쓰고 죄 없이 오랜 옥살이를 하는가 하면, 진정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개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한은 결코 풀이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희생은 영원히 매장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들이 갈구하는 본능적인 영원한 생명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청각이란 들을 것이 없으면 퇴화되고 맙니다. 시각이란 볼 것

이 없으면 퇴화되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도 그 대상이 없으면 퇴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동화는 '오래 오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것은 본능적 갈망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조리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미지의 세계만큼 두렵게 느껴지고, 친숙한 이 세상을 떠나는 일만큼 슬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온지는 모를 일입니다.

옛날 중국에 어느 공주가 살았답니다. 시집을 가야 하는데, 그것이 싫었던 공주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시집가서 살아야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부모를 떠나는 일이 슬퍼서 마냥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집을 가 보니 좋더랍니다. 어쩌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의 처지가 그 중국의 공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죽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죽음을 '귀천'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歸天)' 중에서

시인 천상병은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에 하늘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큼 어떤 억울한 죽음도, 비참한 죽음도 우리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록 비참한 죽음마저도, 억울한 죽음마저도 마냥 부조리하거나 허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합니다.

나의 살갓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욥 19, 26-27).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어떤 미소도 그분에게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은, 사랑 있는 자나 죽어 있는 자나 누구에게나 손길을 뻗으실 수 있고,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신다는 믿음에서 가능합니다.

생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미소와 아픔과 노력과 헌신 등 어느 하나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순교자들이 보여 주었던 것처럼 영원한 희망을 위한 관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것은 분명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리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맘껏 느껴 봅시다.



조규만 바실리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